논어 6편 옹야 9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賢哉回也！一簞食，一瓢飲，在陋巷，人不堪其憂，回也不改其樂。賢哉回也！」

독음 · 자왈 현재회야 일단사 일표음 재루항 인불감기우 회야불개기락 현재회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안회는 거친 음식과 물로 가난하게 살아도 배움의 즐거움을 잃지 않았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賢 어질 현 현 / 哉 비로소 재 재

回 돌 회 회 / 也 어조사 야 / 一 한 일 일 / 簞 소쿠리 단 단

食 밥 식 식 / 瓢 표주박 표 표 / 飮 마실 음 음 / 在 있을 재 재

陋 좁을 루 루 / 巷 거리 항 항 / 人 사람 인 / 不 아닐 불

堪 견딜 감 감 / 其 그 기 / 憂 근심 우 우 / 改 고칠 개 개

樂 즐길 락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